

# 일본·티베트·동남아 불교전통 공존

### 캐나다 불교계 사원, '앨버타 마을'

“전래 100여 년 만에 40만 명에 육박하는 불자 수가 말해주듯 캐나다 불교는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 저력의 원천은 ‘앨버타(Alberta)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캐나다 지역 매체인 <레스브리지 헤럴드(Lethbridge Herald)> 지는 10월 30일 열린 갈트(Galt) 박물관 주최 특별 강연에서 존 하딩(John Harding, University of Lethbridge·사진) 교수의 말을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레이몬드 불교 사원(Raymond Buddhist Church)의 1932년 전경. 사원 앞으로 당시의 일본계 캐나다인 불자들이 보인다(사진 왼쪽). 하딩 교수(사진 오른쪽)

### 존 하딩 교수 갈트박물관 초청강연서 밝혀 “캐나다 불자 40만명 육박... 내실 다져야 할 때”

이번 특별 강연은 10월 28일 열린 갈트 박물관의 ‘종교와 문화’ 주제 기획전의 관련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하딩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불교의 현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날 강단에 선 하딩 교수는 “캐나다 불교도 수는 2000년대 초 이미 35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4년 달라이 라마의 다섯 번째 방문과 2013년 토론토 시의 ‘부처님 오신날 공식 선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캐나다 불교계의 역량과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늘어났다”며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에 따르면, 하딩 교수의 ‘내실 다지기’는 캐나다 불교계의 초석을 다지며 지역 간의 허브(Hub) 역할을 해왔던 레스브리지 지역의 ‘앨버타(Alberta)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

이다.

캐나다의 불교 전래는 지금까지 ‘1858년 중국인 광부들의 유입’과 ‘1929년 일본인 이민자들의 유입’ 등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딩 교수는 이 중에서 ‘일본인 이민자들의 유입’에 주목한 셈이다.

당시 일본인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밴쿠버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 요량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의 ‘대 일본인 이주 정책’이 시작되면서 레스브리지 지역으로 이동, 정착촌이 건설됐다. 한편 ‘이주 정책’은 일본인을 한 곳에 모으는 결과로 낳았는데, 이는 캐나다 불교가 정착촌 건설과 함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레스브리지 지역의 문화 속에서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전제하 하딩 교수는 “일본인 이민자들이 레스브리지의 앨버타 마을에 처음 세운 사원은 조도신수(Jodo Shinshu)계 불교 사원”이라며 “그 사원이 ‘레이몬드 불교 사원(Raymond Buddhist Church)’이”고 덧붙였다.

또한 “불교 공동체인 앨버타 마을의 활동은 비단 불교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영성 운동에도 자극을 주었다”고 강조한 하딩 교수는 “이는 앨버타 마을이 신앙의 허브 역할을 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금의 캐나다 불교계는 일본 이외에도 티베트와 동남아시아 불교의 무



대가 되고 있지만, 그 시원은 어디까지나 ‘앨버타 마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에 따르면, 캐나다의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티베트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인데, 이는 당시 앨버타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캐나다 불교계의 노력의 성과이다. 1971년 시작된 캐나다의 ‘티베트 난민 정착 프로그램’으로 현재 4000여 명의 티베트계 캐나다인들이 퀘벡 온타리오 토론토 밴쿠버 등지에서 살고 있다.

이와 함께 <레스브리지 헤럴드> 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불교단체가 많은 도시는 134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온타리오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94개, 퀘벡에도 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캐나다의 불교도 수는 1991년 16만 3415명이었고 현재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할 만큼 급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티베트 스님, 중학교 일일 교사로 나서

### 종교문화 수업 일부로 美 학교에서 수업 진행



엘 카미노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종교문화 수업의 특별 선생님이로 초빙된 스님으로부터 티베트 문자 쓰기 지도를 받고 있다.

스님들이 중학교 일일 교사로 강단에

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마리아(Santa Maria)에 위치한 엘 카미노(El Camino) 중등학교에서 티베트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불교 문화 포교사로 나섰다 선(Sun)지가 10월 23일 보도했다.

드레펅 고방(Drepung Gomang) 사원의 스님 세 명은 10월 17일 중등학교 7학년 반을 방문해 오후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다른 세상과 신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엘 카미노 학교 선생 리사 뮈첸(Lisa Muetzel)은 이같이 말하며 “세계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스님들은 미국 전역을 방문하며 티베트의 문화적 전통과 불교 철학을 사람들에게

게 전한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염불하는 법 외에도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듣고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대해 배웠다. 또한 ‘옴 마니 반 메 후’를 써넣은 통다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통다는 티베트에서 경전의 심오한 뜻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높은 곳에 매다는 오색 깃발을 뜻한다.

수업을 진행한 게슈 롱삼 체첸(Geshe Lobsang Tsetsen) 스님은 “염불 속 각각의 단어에는 힘이 깃들여 있다. 각각의 단어들에 힘을 합쳐서 순수함과 선한 에너지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학년인 에스메랄다 로드리게스는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온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현진 기자

# 불교의 美에 미국이 빠져들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신라 특별전... 보고난 외국인들 반응 남달라

불교문화가 꽃피워낸 아름다운 신라 문화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황금의 나라, 신라(Silla, Korea's Golden Kingdom)’ 특별전에 세계인들의 호기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언론을 대상으로 특별전 사전공개 행사를 가졌던 10월 28일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미술관 측은 1주일간 박물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공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한국의 더없이 아름다운 보물들이 뉴욕을 찾았다”며 신라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서구에서 개최되는

최초 특별 전시인만큼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토마스 캠프벨(Thomas Campbell)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방한하기도 했던 캠프벨 관장은 “신라 유물만 집중 조명하는 최초 전시회로 신라의 탁월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인 석굴암의 디테일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풀HD 보다 4배 더 생생한 화질이다.

한 외신기자는 국외반출로 논란이 됐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유려함과 미소가 모나리자보다 더 신비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의 월간 미술전문 잡지인 아트뉴스



신라 특별전을 관람한 도로서 골드만 씨는 “이제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전시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ARTnews)의 로빈 쉴발레스트(Robin Cemmabest) 편집 담당 중역은 “환상적이고 황홀하다”며 “신라 예술품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정교한 기술에 놀랐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 멘로 구겐하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또한 “신라의 문화에는 관람객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는 신라 미술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 미

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라 특별전시관은 관객이 가장 많은 1층 그리스 로마 전시관 바로 옆에 배치됐다.

연간 관람객이 650만명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신라 특별전이 개최되는 동안 관람객수가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내다 봤다.

배현진기자

# 조지 왕세손이 불교를 믿는다면?

### 영 기자, 왕세손 세례식서 질문

국교회의 나라 영국에서 왕족의 개종은 가능할까?

<텔레그래프(Telegraph)>지는 10월 25일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Justin Welby)의 말을 인용, “왕족, 특히 영국인의 관심이 집중된 조지(George) 왕세손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주교의 말은 최근 제임스 궁전의 예배당에서 열린 ‘조지 왕세손 세례식’을 취재하던 ‘채널 4’ 기자의 “조지 왕세손이 국교가 아닌 불교를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이 자리에서 기자의 치기어린 질문을 받은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그(조지 왕세손)에게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자격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주교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지 않겠나”며 여유를 남기고, “우리는 매우 다원화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의 아들인 조지 왕자.

다”며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나 역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영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40.9%로 크게 증가했고, 기독교인 비율은 55.7%로 낮아졌다. 또한 국교회 신자 비율은 33.4%, 천주교인 14.7%로 조사됐다.

즉,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낮아진 반면 무신론자와 불교와 이슬람 등 다른 종교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셈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 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이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특정 실용신안 제 28054호

# 옥외춧불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귀족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재질
50개꽃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꽃이	150cm	90cm	150cm	플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 세영금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